

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

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

이 내 또한 갑민(甲民)*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
모를쏘냐

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 급제 계속하여
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
시기인의 참소 입어 변방으로 쫓겨 와서
국내 변방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
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
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
유사 장의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
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써
군사 강정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혈어 나니
좌우전후 수다 일가 차차 충군(充軍) 되것고야
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여 있고
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
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
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 의법이라
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
해마다 말아 무니 석송*인들 당할쏘냐

- 작자 미상, 「갑민가」 -

* 돈피: 담비 가죽.

* 갑민: 갑산의 백성.

* 석송: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.

(나)

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아희들아

앞내 ㉠고기 뒷내 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*에 넣어
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엮어다가 주렴

우리도 서주(西疇)*에 일이 많아 바빠 가는 길이매 가 전할동
말동 하여라

- 작자 미상, 사설시조 -

* 다래끼: 물고기나 작은 물건 등을 넣는 바구니.

* 서주: 서쪽 밭.

32. (가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대구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.
- ②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.
- ③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.
-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악화된 처지를 보여 준다.
- 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.

33. ㉠, ㉡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㉠은 ㉡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해 가려는 땅에서 재배할 약재이다.
- ② ㉡은 ㉠을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다.
- ③ ㉠과 ㉡은 모두,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흥을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이다.
- ④ ㉠과 ㉡은 모두,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.
- ⑤ ㉠과 ㉡은 모두,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.

34. <보기>를 참고하여 (가), 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<보 기>

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.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,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.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, 대화가 논쟁,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,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.

- ① (가)의 ‘그대’가 ‘자네’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‘자네’가 풀어낸 사연은, 당시 갑산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군.
- ② (가)의 ‘이내’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, ‘그대’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군.
- ③ (나)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‘우리’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 지는군.
- ④ (나)의 선행하는 화자가 ‘고기’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 된 것은 이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군.
- ⑤ (가)의 ‘그대’는 길 가는 ‘자네’를, (나)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 먹이는 ‘아희들’을 불러 말을 건네고 있어 작품의 상황이 극 중 장면처럼 보이는군.

* 확인 사항

-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 하시오.
- 이어서, 「선택과목(화법과 작문)」 문제가 제시되오니,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.